

#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2017 / 08 / 11 / Friday

발행인 정수현 / 편집인 한성호 / 발행처 현대건설 홍보실 / 주소 서울시 중로구 을곡로 75 현대빌딩 / 대표전화 1577-7755 / 신고번호 종로 라00049

Vol.339  
**우리는  
현대건설  
이다**

.....  
〈사보신문〉에서는 테마로 대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우리는 현대건설이다”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현대건설의 이름으로 완성해온 자랑스러운 역작을 통해 도전 DNA를 일깨우고 강인한 추진력으로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씨마크호텔 2015

포시즌, 웨라톤, JW메리어트 등  
전 세계 국가대표 랜드마크 호텔 세워

## Hyundai E&C upgrades style of cities

Hotel construction is an area that Hyundai E&C confidently jumped into after solidifying its footing as one of Korea's most prominent builders in construction of public buildings and commercial facilities.

Hyundai E&C refurbished the Chosun Hotel in 1970 (currently the Westin Chosun Hotel which is the oldest hotel in Seoul) and built the 24-storey Seoul Tokyu Hotel in 1969 (currently Danam Building), and Koreana Hotel in 1971. By doing so, Korea's primary builder changed a skyline of city of Seoul, translating into upholding the dignity of the country which accomplished so-called the Miracle of the Han

River on the heels of the Korean War.

In the 1980s, Hyundai E&C tapped into the overseas hotel construction market. The builder attracted a special attention by constructing landmark hotels in Asia, Europe and Africa continents.

Notably, its construction capability is outstanding in Singapore where a stiff competition is being staged among luxurious skyscraper hotels in the Marina Bay area. Starting with Marina Mandarin Singapore in 1987, Hyundai E&C built the Westin Singapore in 2015 and JW Marriott Hotel Singapore South Beach in 2017 in the city state.

## 도시의 품격을 높인다

호텔은 여행자에게 휴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도시의 얼굴로 기능하며 문화와 역사를 담는다. 현대건설 역시 공공건축과 상업시설을 건설하며 최고의 건설사로 자리매김한 이후 자긍심을 갖고 도전한 분야가 호텔 공사였다. 현존하는 대한민국 최고(最古) 호텔인 조선호텔(현 웨스틴조선호텔, 1970)의 재개관 공사나 24층 높이를 자랑하는 서울 도큐호텔(현 단암빌딩, 1969)과 코리아나 호텔(1971)을 연이어 시공하며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변화시킨 것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기도 했다. 특히, 미국 벡텔사(社)가 설계와 감리를 담당했던 조선호텔은 고강도 콘크리트, 플랫슬래브(Flat Slab), 국내 첫 타워크레인 도입 등 다양한 공법이 시도되며 초고층빌딩 시공의 근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후 현대건설은 워커히호텔(1977), 인터컨티넨탈호텔(1988), 호텔현대 경주(1990) 등을 시공한 데 이어 2015년에는 프리즈

커 수상자 리처드 마이어가 디자인한 씨마크호텔을 준공해 남다른 품격을 제시하기도 했다.

80년대부터는 해외 호텔 공사도 이어졌다. 바레인 디플로메트호텔(1981)로 첫 포문을 연 현대건설은 도하셰라톤호텔(1982), 발리 쿠타비치 리조트호텔(1997), 호텔현대 블라디보스토크(1997), 이집트 포시즌호텔(2003), JW메리어트 하노이(2013) 등 아시아·유럽·아프리카 대륙에 대표 랜드마크 호텔을 건립하며 주목받았다. 특히 호화 호텔의 각축장이라 불리는 싱가포르 마천루 경쟁에도 현대건설의 시공능력은 빛을 발하고 있다. 마리나 센터의 마리나만다린(1987)을 시작으로 더웨스턴 싱가포르(2015), JW메리어트 싱가포르 사우스비치(2017) 등은 지금도 관광객들에게 안락한 휴식과 여유를 제공하고 있다.



웨스틴조선호텔 1970



인터컨티넨탈호텔 1988



도하쉐라톤호텔 1982



이집트 포시즌호텔 2003



호텔 현대 블라디보스토크 1997



JW메리어트 하노이 2013



JW메리어트 싱가포르 사우스비치 2017

## Hillstate taking the lead for clean smart home

An integrated system to measure and notify air quality

Our company sets out to apply a cutting-edge air quality control system to preclude fine dust particles from flowing into indoor space and further remove them.

The key technologies of the integrated system include advancement of detection and measurement, information delivery, automation of fine dust reduction devices, enhancement of fine dust control technology and related items and Hi-OT interoperation.

To this end, our company is planning to upgrade the fine dust detection system by providing the tentative-



힐스테이트 미세먼지 신호등(가칭) 이미지.

ly named "Hillstate Fine Dust Signal Light" for Hillstate Shinchon. Fine dust detectors will be installed around children's playgrounds, enabling patients to respond appropriately to air conditions. Smile graphics will be used for

easy understanding, and the residents can check an alarm and information on fine dust by utilizing an application on their smart phones and the Home Network Wall Pad installed in individual units.

As part of a plan to automate fine dust reduction equipment, a gas range hood and a ventilation system are operated as soon as a gas oven is turned on. A system air conditioner is operated depending on the indoor air pollution level.

In addition, our company will equip the ventilation system with HEPA (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s blocking ultra-fine particles, develop and apply a mist fountain designed to prevent the spread of fine dust, and develop built-in ventilation system equipment inter-networked with Hi-OT.

## 힐스테이트, 청정 스마트홈 구현에 앞장서다

통합관리 시스템 적용, 센서 통해 대기환경 측정·알림

우리 회사가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미세먼지 실내 유입을 차단하고 이를 제거하는 첨단 통합시스템을 적용한다.

미세먼지 통합 시스템의 핵심은 ▶감지 측정 고도화 ▶정보 전달 ▶저감장치 자동화 ▶제어기술·아이템 강화 ▶Hi-OT(하이오티·힐스테이트 사물인터넷 시스템) 연동 등 다섯 가지다.

이를 위해 우리 회사는 '힐스테이트

미세먼지 신호등(가칭, 힐스테이트 신촌 적용 예정)'을 설치하는 등 감지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놀이터 주변에 미세먼지 감지 센서를 설치해 부모들이 대기환경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마일 그래픽을 적용하고, 입주자는 스마트폰 앱과 각 세대 내 홈네트워크 월패드를 통해 미세먼지

알람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장치도 자동화된다. 음식물 조리 시 가스쿠파 작동과 동시에 레인지후드 및 환기 장비가 가동되고, 실내 오염도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도 추가로 작동해 미세먼지를 신속하게 제거한다.

이외에도 초미세먼지까지 차단할 수 있는 HEPA 필터를 장착한 환기시스템,

미세먼지 확산을 방지하는 미스트 분수, 'Hi-OT'와 연동된 빌트인 환기시스템을 적극 개발해 아이템 다양화와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우리 회사는 올해 10월까지 기존 센서 및 환기 시스템에 대한 성능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5단계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을 힐스테이트 송도 테라스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 2017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우리 회사가 최근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성과, 앞으로의 전략을 담은 '2017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2017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지난해에 수록한 '\*UN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건설업 이행모델을 보다 구체화해 핵심 이행목표를 제시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4대 핵심 이행목표는 ▶이행을 위한 파트너십 ▶기후변화 대응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평화로운 사회와 제도다. 또한, 차세대 보고기준인 'GRI Standards' 규격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국내 건설사 최초로 지속가능보고서 글로벌 표준인 GRI G4 Comprehensive 등급을 3년 연속 획득, 정보공개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2017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국문과 영문으로 동시에 발간했으며, 현대건설 홈페이지(http://www.hdec.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UN 지속가능개발목표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의 경제·환경·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17개 목표로 시행되는 유엔의 글로벌 중장기 발전계획.

## 제3기 '힐스테이트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 수료식

우리 회사가 지난달 28일 양재동 힐스테이트 갤러리에서 '제3기 힐스테이트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 활동을 마무리하는 수료식을 가졌다.

'힐스테이트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은 우리 회사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의 미래와 함께 지역사회 청소년의 학업 향상과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2014년 업계 최초로 시행한 교육 장학 프로젝트다. 직원·대학생 봉사자는 청소년 멘티와 조를 이뤄 진로 설계는 물론 학업 향상을 돕는다.

지난해 10월 발족한 3기 봉사단은 멘티 청소년 전원의 성적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희망직업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 회사 관계자는 "꿈키움 멘토링

이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건설업과 연계해 공몽의 발전을 도모하는 현대건설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이 되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힐스테이트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은 현재 4기를 모집 중이다. 8월 중 직원과 대학생 멘토를 최종 선발한 후 9월 말 발대식을 시작으로 멘토링 활동을 펼치게 된다.



## 인도네시아 시나르마스 현장, 상량식 개최

우리 회사의 인도네시아 시나르마스 16 현장이 지난달 26일 상량식을 하고 1년9개월간의 주요 골조공사를 마무리 지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현장 내에서 열린 이날 상량식에는 우리 회사 건축사업본부장 김정철 부사



장, 자카르타 지사장 서민종 부장, 현장 소장 강창우 부장대우를 비롯해 발주처 사장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의 골조공사가 순조롭게 마무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초청인사 소개 ▶참석인사 축하연설 ▶상량 퍼포먼스 ▶점심식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2015년 8월에 착공한 현장은 연면적 8만4000㎡, 지하 3층~지상 32/39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2개 동, 총 372세대를 시공하는 프로젝트다. 준공은 2018년 5월이다.

## H-Members 공중별 간담회 실시

우리 회사는 6월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10일간 서울 계동 본사에서 300여 개 외부 협력사가 참석한 가운데 H-Members 공중별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공중별(인프라 64개, 건축 146개, 기계 51개, 전기 30개) 협력사 대표가 참여해 총 15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공중을 세분화한 소모임 형식으로 진행해 협력사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친밀감을 높였다는 평가다.

우리 회사는 상생협력 방안을 논

의하고 협력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2013년부터 H-Members 공중별 간담회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제안된 협력사의 의견은 우리 회사 상생협력팀 전담 직원이 실시간으로 접수,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우리 회사는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동반성장펀드 조성, 해외 진출 희망 협력사 교육, 우수 협력사 해외 현장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그림사 소식

### 현대차그룹, '기프트카 캠페인 시즌 8' 모집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 8월 4일부터 내년 3월까지 자립을 꿈꾸는 어려운 이웃에게 창업용 차량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기프트카 캠페인 시즌 8'을 시작한다. 현대차그룹은 6주 간격으로 6~8명씩 선발해(청년 창업자 포함) 총 50대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자에게는 창업자금과 함께 창업교육, 컨설팅 등 종합적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프트카 캠페인 시즌8의 주인공으로 선정되면 현대자동차 포터, 스타렉스와 기아자동차 봉고, 레이 등 창업 계획에 가장 적합한 차량과 함께 차량 등록에 필요한 세금과 보험료를 지원받는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지원 대상자에게 500만원 상당의 창업자금 및 마케팅 지원과 함께 창업교육, 맞춤형 컨설팅 등 성공창업을 위한 종합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현대차그룹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인 '기프트카 캠페인'은 차사순 할머니, 송가원 천사 등 다양한 이들에게 자동차를 선물해 화제를 모은 2010년 시즌1을 시작으로 올해 8년째를 맞이했으며, 시즌까지 총 266대의 차량을 사회 곳곳에 전달하며 호평을 받고 있다.

### 현대자동차, 우수 교육 인력 양성에 미래자동차인재육성

현대자동차가 전국 자동차 관련 학과의 교원을 대상으로 '2017 전국 교원 자동차 기술 연수'를 진행, 미래 자동차 인재 육성을 위한 우수 교육 인력 양성에 나섰다.

현대차는 최근 천안연수원에서 대학교, 기술교육원, 고등학교 등 전국 78개 자동차 관련 학과의 교원 90명을 초청해 신차에 탑재된 엔진과 주행안전기술 및 편의장치 등 신기술을 소개하는 2박3일 합숙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에 진행된 기술 연수는 현대차가 2005년부터 10여 년 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 기부 및 산학협력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최신 자동차 기술 트렌드와 현대차의 최첨단 기술을 상세히 알리는 기회가 됐다. 특히 올해는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견학 프로그램을 추가해 기술 연수에 참가한 교원들에게 '보고 듣고 느끼는' 자동차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향후에도 기업과 교육기관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현대엔지니어링, 3684억원 규모 베트남 전력플랜트 공사 수주

현대엔지니어링이 8월 6일 베트남 롱슨 페트로 케미칼(Longson Petrochemical)로부터 롱슨 석유 화학단지 유틸리티 플랜트 사업에 대한 낙찰통지서(LOA)를 접수했다. 공사금액은 약 3억2000만 달러(약 3684억 원) 규모다.

이번 프로젝트는 호찌민시에서 동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봉따우시 롱슨아일랜드에 들어서는 롱슨 석유화학단지 운영에 필요한 스태밍·공업 용수 생산을 위해 보조보일러, 수처리설비 등 기반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다. 예상 공사기간은 착공 후 47개월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지금까지 베트남에서 폴리 에스테르 생산플랜트, 폴리프로필렌 생산플랜트, 하이퐁 복합리조트, 엔바이성 종합병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쌓은 인지도와 동남아시아에서 다수의 발전소 수행능력을 인정받은 것이 이번 수주의 발판이 됐다"고 말했다.

# ‘La Traviata’ gets a Korean twist with hanbok

Aug 07

Giuseppe Verdi’s “La Traviata” is one of the most familiar operas to Koreans, since it has often been staged locally to attract beginners to an art that is often considered difficult. In an effort to appeal to a wider audience, the Korea National Opera (KNO) decided to stage the opera with a Korean twist, setting the story not in the original 18th century aristocratic France, but in the Joseon Dynasty’s most stable and prosperous era under King Yeongjo (1694-1776), the 21st king, and King Jeongjo (1752-1800), who succeeded the throne from his grandfather. The era, according to historians, is often regarded as “the era of renaissance.”

The storyline is similar to the original, which is based on Alexandre Dumas’ novel “La Dame aux Camelias,” or “The Lady of the Camelias” in English. The story revolves around Violetta, who falls in love with a young bourgeois Alfredo from a provincial family. The opera ends tragically with Violetta’s death. The opera usually unfolds on a colorful set filled with eye-catching costumes.

This begs the question - how would a Korean Violetta be portrayed?

To really show the lavish and extravagant beauty of the King Yeongjo



and Jeongjo era through costumes, the upcoming KNO production’s director Jung Ku-ho, who is also a fashion designer, turned to Kim Young-jin, a designer of hanbok (Korean traditional dress) at the renowned hanbok brand Tchai Kim, for help.

It was, in fact, Tchai Kim hanbok that trig-

gered the recent boom of young Koreans wearing hanbok to take pictures around the palaces in central Seoul, as her modernized design of hanbok skirts quickly gained attention on social media. Kim’s hanbok designs are usually contemporary, but for the upcoming “La Traviata,” Kim says she stuck to traditional hanbok design and the use of color to “really show the history of the clothing of the era the opera is set in.”

“Hanbok during King Yeongjo and King Jeongjo’s times has a very distinctive silhouette,” said Kim. “The fabric used for the hanbok of that time was especially high in quality and luxurious while the jeogori (upper garment of hanbok) became shorter, highlighting the bell-line design of the skirt. So for the costumes, especially for the protagonist Violetta, I tried to highlight those aspects.”

By KOREA JOONGANG DAILY



## Internet-only banks shake up the industry

Aug 05

The emergence of internet-only banks - K bank in April and Kakao Bank in late July - has opened doors for Koreans with so-called middling credit to borrow money from financial institutions at reasonable rates. Previously, people with scores between four and six on a scale of one to 10 - with 10 being the worst - were rejected by commercial banks when they tried to take out loans.

“Inconvenient banking services are what started this bank,” said Lee Yong-woo, co-

chairman of Kakao Bank. “We had to reinterpret banking as a whole while we were preparing for our service, such as incorporat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like data analysis] into finance.”

The reason why Kakao Bank and K bank can offer loans at such reasonable rates is because they analyze not just credit information provided by credit rating bureaus but also a wide spectrum of personal data like people’s online shopping history and even mobile phone bills. Their services

are also available 24 hours a day because everything is done on mobile phones instead of in brick-and-mortar branches like conventional banks, whose business hours usually end at 4 p.m.

Internet-only banks have proven popular with the Korean public. K bank, which entered the race first on April 3, gained more than 150,000 subscribers in less a week. This far exceeds the number of accounts created with commercial banks that allow people to open accounts through mobile phones. According to data from



the financial industry, 155,000 accounts were opened in 2016 at commercial banks. Kakao Bank, which launched its service on July 27, far outpaced even K bank. As of Aug. 3, a week after its launch, 1.5 million accounts had been opened on the app.

By KOREA JOONGANG DAILY

### Group News

## Hyundai Sonata Named One of the 10 Most Awarded Cars of 2017 by Kelley Blue Book

Capping off a successful award season, the 2017 Hyundai Sonata has earned a spot on Kelley Blue Book’s KBB.com “10 Most Awarded Cars of 2017” list. In addition, Hyundai was one of the “10 Most Awarded Brands of 2017,” with vehicles throughout its lineup being honored for their design, engineering, technology and value. In a crowded midsize-sedan market, the Sonata shines with its powerful engines, handsome styling, comfortable and quiet driving environment and wide array of standard features.



“Even in one of the industry’s most competitive classes, the Sonata continues to distinguish itself with dynamic style and luxury features at a best-in-class value,” said Brandon Ramirez, senior group manager, product planning, Hyundai Motor America.

## Kia hands over secondary school and healthcare center to Tanzania and Malawi

Kia Motors Corporation has handed over a community-run school to a local community in Tanzania and a healthcare center in Malawi. These are the latest facilities to be constructed and opened under Kia’s “Green Light Proje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rogram. Kia’s Green Light Project - a global social mobility program started in 2012 - strives to improve access to healthcare, education and employment for disadvantaged communities in Africa by helping them to establish much-needed facilities. The program seeks to empow-

er local communities to improve mobility and self-sufficiency, and enable them to challenge and overcome their obstacles. With the establishment of each Green Light Project facility, Kia’s final goal is to be able to hand over full control to a local community.



### 10 minute Korean Lessons



I have something to ask  
 여쭙볼 게 있어요

#### Situational context

Michael wants to ask his manager about the manager’s plan for his business trip while he is working. At this point, he can say, “여쭙볼 게 있습니다.”

#### Today’s dialogue

마이클 부장님, 여쭙볼 게 있습니다.  
 bujangnim,  
 yeojjwobol kke isseumnida.  
 부장 그래? 무슨 일인가?  
 geurae? museun irin-ga?  
 Michael Sir, I have something to ask.  
 Manager Yes? What is it?

#### One more expression

Usually, you can use a similar phrase when making phone calls by using “여쭙볼 게 있어서 전화 드립니다.” (I called you because I have something to ask.)



I should have come earlier  
 일찍 올 걸 그랬어요

#### Situational context

Michael went to “Korean Restaurant” to have a lunch, but there were lots of people waiting. He waited 30 minutes before he could eat, Michael wants to say he regrets not coming earlier. At this point, “일찍 올 걸 그랬어요.”

#### Today’s dialogue

마이클 좀 더 일찍 올 걸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네요.  
 jom deo iljik ol kkeol  
 geuraesseoyo, saramdeuri  
 neomu mani gidarigo innayo.  
 영민 그러게요.  
 geureogeoyo.  
 Michael I should have come earlier.  
 Too many people are waiting now.  
 Yeong-min I ag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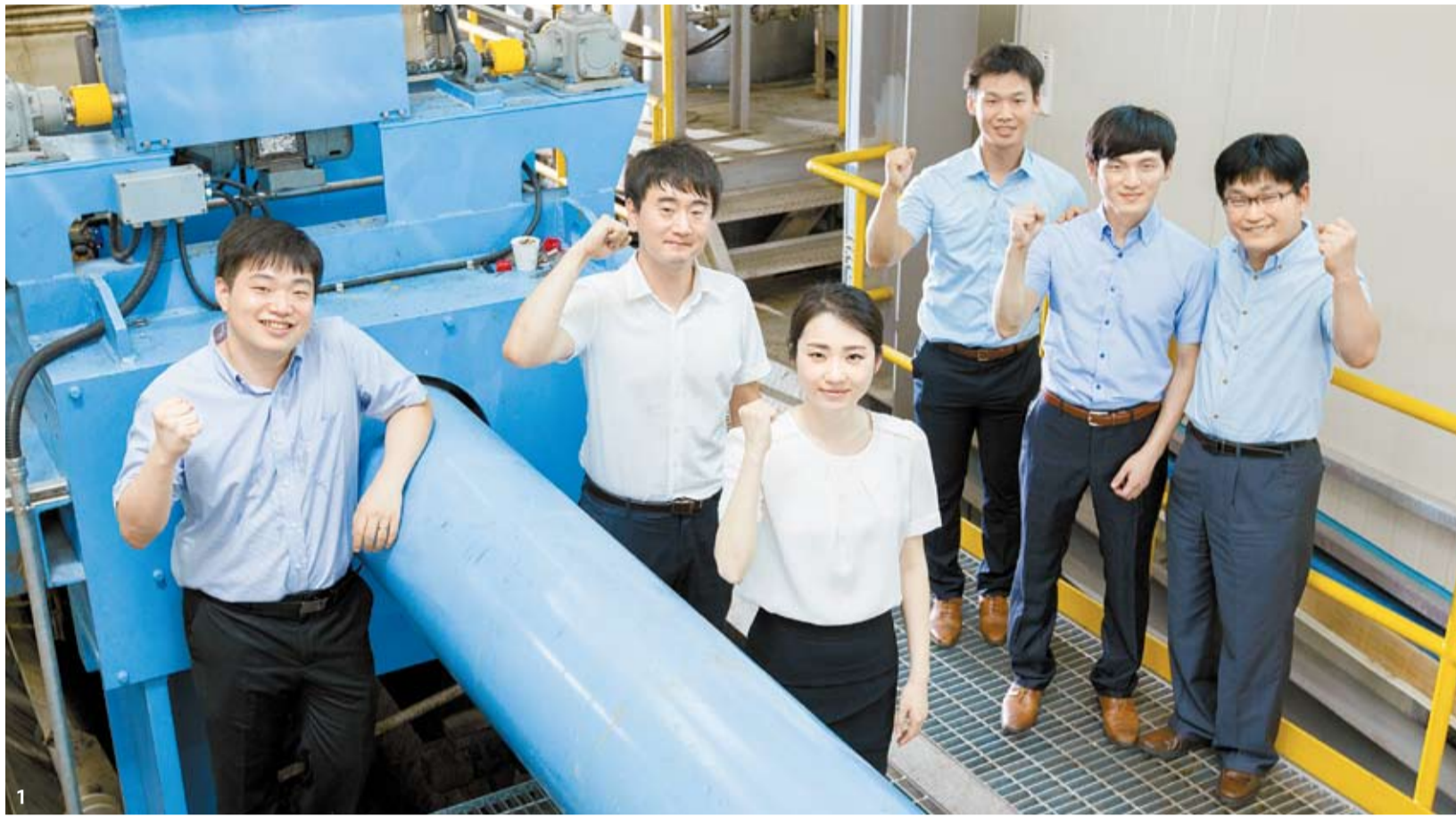
#### One more expression

If you don’t like the result or you feel something is lacking, then you can say “좀 더 일찍 왔더라면(좋았을 텐데).” (If I had come earlier, (then it would have been better).)

Please scan the QR code for more Korean language learning resources.  
 Source: 세종 누리 학당(Nuri-King Sejong Institute) www.sejonghakdang.org



우리 회사의 '하수슬러지 열가수분해 에너지화 기술'이 최근 '기술검증'을 획득하며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입증했다. 하수슬러지 분야에서 '기술검증'을 따낸 것은 국내에서 우리 회사가 유일하다. 그 값진 성과를 이루기 위해 긴 시간 동안 하나의 목표를 보고 달려온 이들을 <사보신문>에서 만났다. 글·정리=이희정



1 에너지플랜트연구팀 광승호 대리, 이동주 대리, 김민정 대리, 류제준 대리, 박지운 대리, 이교성 팀장(왼쪽부터). 2,3 2013년 준공한 하수슬러지 실증플랜트 시설의 외관과 내부의 모습.

## 국내 최초 하수슬러지 분야 신기술검증 획득 “시장을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가 되겠습니다”

### 협력의 시너지로 이뤄낸 신기술검증 국내 최초로 하수슬러지 분야에서 기술검증을 획득했습니다.

이교성 팀장(이하 이 팀장) 연구가 사업으로 이어지고 회사에 기여하게 되기까지 팀원들이 고생이 많았어요. 8년 전 최초 연구 단계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합니다. 사업분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하수슬러지 분야의 글로벌 강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현태 차장(이하 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동료들이 있었기에 '실증시설 운영'과 '기술검증'이라는 처음 가보는 길을 무사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가장 기약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박지운 대리(이하 박) 팀원 모두가 한마음 일 텐데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실증 시설을 시운전하고, 처음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했을 때 정말 기뻐했습니다.

임 실증시설에서 첫 탈수 케이크를 생산했을 때, 연속 운전 때 마음 졸이며 밤새웠을 때- 그간의 일들이 스쳐 지나가네요. 긴장으로 점철된 3개월간의 길고 긴 검증 마지막 날 우리끼리 점심때 중국 집에서 간단하게 자축하며 서로를 다독였어요.

광승호 대리(이하 광) 연구원들 모두 실증시설 운전과 기술검증을 처음 겪는 일이라 미숙한 면도 많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지 몰라 좌절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모두 다 좋은 추억입니다.

### 연구개발부터 기술검증을 받기까지 8년이 걸렸습니다.

이 팀장 2010년 당시 정부의 국정과제로 40억원을 지원받아 연구를 시작했어요. 경기도 광주시의 도척하수처리장에

일 20t 규모의 실증플랜트(2012년 착공, 2013년 준공)를 짓고, 1년여의 시설 운전 후 2014년에 환경 신기술 인증을 받았어요. 신기술 인증에서 기술검증까지 3년이 걸린 셈인데요. 보통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연구 기간만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개발된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개발에서 사업화까지의 과정을 혁신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임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글로벌

용화 시 성능과 안정성을 공인기관이 보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동주 대리(이하 이) 기술검증서는 인증서와 다르게 실제 처리용량, 에너지, 전력 및 용수 사용량 및 검증기간 등을 꼼꼼히 적어 발급해요. 검증 혜택도 인증 시 입찰가점의 4배인 2점을 부여하고, 무엇보다도 평가 받은 시설용량의 10배를 시공실적으로 공인해줍니다.

이 팀장 연구개발 후 가장 큰 어려움이 사업실적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이번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노르웨이의 Cambi사가 있는데요. Cambi는 미국 워싱턴에 일일 1000t 처리 용량의 시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어요. 하지만 선진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바이오 가스 증산 기술이고, 슬러지 탈수 감량화 및 열가수분해 기술을 실증·운영까지 한 것은 우리가 유일합니다.

박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국내 대부분의 하수슬러지는 해양 투기와 매립으로 처리했어요. 처리단가도 t당 1만원 선이었죠. 2010년 이후부터는 국제 협약에 의해 점차 육상처리로 전환했고, 현재 수도권 지역의 처리단가는 t당 약 12만원 선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매년 4000억원의 예산을 슬러지 처리비로 집행하고 있고, 하수슬러지 발생량도 매년 3%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 하수처리시설 중 슬러지 처리를 위한 시설비와 운영비 비중은 약 40%나 됩니다. 또 최근 들어 중동·남미에서도 슬러지 처리시설을 포함한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발주하고 있어 앞으로의 시장 상황도 밝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임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으로 발전시켜 회사의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실증시설의 공정 설계부터 운영까지 한 경험은 앞으로 우리 회사의 투자 운영 사업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 팀장 현재 진행 중인 시흥클린에너지센터 민간투자사업을 사업분부와 협력해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시흥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난 후 타 지자체와 협의 중인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려 합니다. 국내에서 차근차근 실적을 쌓은 후 해외 시장에도 진출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요. 앞으로의 행보를 더욱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 혁신적으로 기간 단축 현대건설 최초로 '기술검증' 따내

벌마케팅분부와 협업해 시장과 기술개발 방향을 면밀히 설정한 것이죠. 사업분부와 함께 지자체를 방문해 각 지역 특성마다 다른 기술 니즈를 파악하고, 시장의 요구에 따라 기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추가적인 사업 발굴을 위해 사업분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 '기술검증'은 '신기술인증'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김민정 대리(이하 김) 인증은 서류심사 위주이고, 검증은 현장 운전 심사예요. 기술검증 제도는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술이 실제 사업에 적용됐을 때 성능이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제도예요.

류제준 대리(이하 류) 인증은 하루 정도 현장점검만 하는 반면, 검증은 3개월 이상 평가원 직원이 직접 상주하면서 실제 시설 성능과 안정성을 체크해요. 그래서 기술검증을 받았다는 것은 상

기술검증으로 우리 회사는 사업실적을 확보할 수 있어서 큰 산 하나를 넘은 셈이죠.

###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 진출을 목표로

### 하수슬러지 시장 트렌드와 우리가 개발한 기술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이 슬러지 1t을 건조시키려면 약 80만kcal의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우리가 개발한 기술은 30만kcal 에너지를 소비해 약 60%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어요. 또 환경 시설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악취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전 공정을 밀폐형으로 설계했습니다. 김 또 '슬러지 감량'과 '바이오가스 증산' 기술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활용해 사업 조건에 따라 최적의 슬러지처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향후 실증시설 운전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경쟁력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류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 '하수슬러지 열가수분해 에너지화 기술'이란?



기존 대비 바이오가스 생산량 50% 증대



기존 대비 슬러지 폐기량 30% 감소



석탄발전소 대체연료 생산(약 3000kcal/kg)



건조 기술 대비 에너지 소비량 50% 감소

유럽의 일부 선진업체만이 보유하고 있는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 기술. 하수 처리 시 발생하는 폐기물인 하수슬러지를 고온고압 조건(200도, 20기압)에서 열가수분해해 기존 대비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50% 향상시키고, 슬러지 폐기량을 30% 감소시킬 수 있다. 기존 건조 방식으로는 수분 함유 80%인 슬러지 1t을 처리하는 데 80만kcal가 드는 반면, 신기술로는 30만kcal가 들어 에너지 소비량을 60% 줄일 수 있다. 또한 감량화된 하수슬러지는 3000kcal/kg 이상의 열량을 내포해 화력발전소의 석탄 대체연료로도 사용 가능하다.

우리나라 드라마의 공통점이 있다. 의학 드라마는 병원에서 연애하고, 수사 드라마는 경찰서에서 연애하며, 사극은 한복 입고 연애한다는 것. 그도 그럴 것이 젊은 남녀가 모여 있는 곳에서는 늘 로맨스가 피어나기 마련이다. 우리 회사도 예외가 아니다. 동료와 특별한 인연을 맺고 부부가 된(또는 될) 사람들, 그중에서도 여자들이 모여 사내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냈다. 글=김보나 / 사진=이슬기

사내 부부 아내들의 이야기

회사에서도 집에서, 서로 '든든한 동반자'

동료에서 결혼까지 이르게 된 연애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김묘진 사원(이하 김 사원)** 저와 예비 신랑 백경우 사원은 16사번 입사 동기예요. 지난해 제주도에 열린 신입사원 수련대회에서 같은 팀으로 뮤지컬 공연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친하지 않았는데, 수련대회를 치르면서 남자친구가 저한테 호감이 생겨 고백했어요(웃음). 처음에는 동기라고만 생각했는데, 저는 현장에서 근무하니 퇴근 후 만나면 편안한 복장이고, 남자친구는 정장 차림이었거든요. 그 깔끔한 모습이 점점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염수지 대리(이하 염 대리)** 저는 2013년 코트디부아르 아지토 발전소 현장에 첫 현장 발령을 받아 12월 24일에 도착했어요. 그때 같이 발령을 받아 비행기를 타고 함께 출국한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예요. 첫 현장 근무이다 보니 제가 의지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인연이 돼 2년 넘게 연애하고, 서울로 복귀해 결혼하게 됐어요.

**최진영 과장(이하 최 과장)** 동기들끼리 저녁을 먹는 자리에 남편 일행이 합류해 처음 알게 됐죠. 서로 본부가 달라서 일로 마주칠 일은 없었는데 그때 만난 사람들과 이후로도 계속 모임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친해졌어요.

비밀 연애였나요? 연애 에피소드가 궁금해요.

**김 사원** 신입사원이기도 하고 회사에 여자가 많지 않아 쉽게 눈에 띄까봐 비밀 연애로 시작했죠. 그러다가 남자친구의 외국인 친구를 함께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와 남자친구를 같이 태그해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너무 놀라서 보자마자 지웠는데 이미 동기를 몇몇이 봤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저를 좋아하는 걸 다들 알고 있어서 "그럴 줄 알았다"며 별로 놀라지는 않았어요.

**염 대리** 저는 해외 현장이라는 폐쇄적인 곳에 있다 보니 비밀 연애가 불가능했어요. 크리스마스이브에 둘이 현장에 도착해서 그랬는지, 소장님을 비롯한 선배들께서 "잘해 보라"며 엄청 저희를 엿어주고 지지해주셨거든요. 공개 연애를 하며 현장의 큰 즐거움이 되어 드렸



"결혼 후 회사 업무와 육아를 같이하면서도 힘든 내색 하나 없는 멋진 모습에 항상 감동하고 감사해. 언제나 옆에서 응원하는 동반자가 있다는 걸 잊지 말고! 평생 함께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 보내자"

이호창 과장  
나라기움 역의도 빌딩 현장

**Q 결혼 후 달라진 점이 있나요?**  
**염 대리** 결혼한지 1년3개월 정도 됐지만 반 이상은 서로 떨어져 지냈어요. 지

**Q 결혼 전후 달라진 점이 있나요?**  
**염 대리** 결혼한지 1년3개월 정도 됐지만 반 이상은 서로 떨어져 지냈어요. 지

**Q 결혼 전후 달라진 점이 있나요?**  
**염 대리** 결혼한지 1년3개월 정도 됐지만 반 이상은 서로 떨어져 지냈어요. 지

금도 남편이 이란에서 TFT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선배들도 현장에 오래 계신 분들은 늘 신혼 같다고 하시던데, 저희는 실제로도 신혼이지만 더더욱 신혼 같아요. 결혼 한 후에 떨어져 살게 되니까 연애 때보다 더 애뜻해요.

**최 과장** 아이 낳고 육아에 열중하다가 오랜만에 연애 시절을 떠올리게 되네요(웃음). 저 역시 비밀로 연애하다 결혼 날짜를 정하고 나서 상사분께 살짝 말씀드렸어요.

사내 부부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예비 부부에게 서로 배려할 점에 대해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염 대리** 최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해요.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장점으로는... 서로의 월급 내역을 다 안다는 것(웃음)? 나쁜 비밀을 만들 수 없죠.

**김 사원** 저는 다음달에 있는 결혼식에 정수현 사장님께서 주례를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사내 부부만 누릴 수 있는 특

"자기가 결혼하고 같이 지낸 시간보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더 많은데, 이해해주고 잘 지내줘서 고마워. 복귀하면 지금까지 함께하지 못했던 것들 다 해줄게. 앞으로 더 많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지내자"



정영훈 과장  
이란사업수주추진TFT

권이랄까요? 또 하나의 장점은 UC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웃음). 만약 나중에 저도 본사에서 일하게 된다면 아침에 함께 출근하는 것도 행복할 것 같아요.

**최 과장** 직원들의 인식이 중요하데, 상사분들이 사내 부부를 좋게 봐주셔서 다행이에요. 때로는 남편의 일을 잘 알고 이해한다는 점이 장점이자 단점이 되기도 해요. 현장 근무 경험이 있어 현장 공무 업무가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알거든요. 그렇지만 아이가 어리다 보니 둘 중 한명은 일찍 들어가야 하는데, 스케줄을 조정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남편이 어쩔 수 없이 바쁜 걸 알지만 저도 사람인 지라 서운하기도 한데, 그 걸 표현하기는 힘든 거죠. 회사원으로, 엄마로, 아내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해내는 건 참 어려워요. 저도 시행착오를 겪는 중이에요(웃음).

**염 대리** 저와 남편은 업무에 있어 서로 모르는 걸 편하게 물어볼 사람이 있다는 건 참 좋거든요. 대신 그만큼 공과사를 구분해서 선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최 과장** 맞아요. 회사생활과 관련해 몰라도 되는 건 알리고 하지 않는 게 도움이 돼요. 같은 회사에 다닌다는 점을 서로 크게 의식하지 않는 거죠.

**김 사원** 예비 신랑은 현장의 힘든 점에 대해 많이 들어서인지, 저를 정말 많이 배려해줘요. 업무적으로 전혀 공통점이 없기도 하네요. 저도 선배님들처럼 서로 지켜줄 점은 지켜주고, 또 남편만의 고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어요.

평소 남편에게 하기 힘들었던 이야기가 있다면 지면을 빌려주세요.

**김 사원** 현장을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아 배우는 단계라 여유가 많지 않아요. 결혼 준비를 예비 신랑이 거의 다 해주고 있는데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염 대리** 멀리 고생하고 있는 남편, 건강하게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보고 싶다!  
**최 과장** 회사 어느 곳에 있던 제가 남편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었으면 해요.

"요즘 일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가 큰 도움이 못 되는 것 같아 미안해. 그렇지만 옆에서 항상 응원할게. 덕분에 무척 행복하다! 평생 이 행복을 잊지 않을게. 사랑해"

백경우 사원  
부동산투자개발실



전력건설실 전력건설1팀 염수지 대리  
남편 정영훈 과장과 2016년 5월 결혼. 결혼 2년차  
송파엘리오시티 현장 설비팀 김묘진 사원  
남편 백경우 사원과 2017년 9월 9일 결혼 예정  
홍보실 언론홍보팀 최진영 과장  
남편 이호창 과장과 2012년 9월 결혼. 결혼 6년차





<택시운전사>는 1980년 광주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린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1937~2016)의 회고를 기반으로 한다. 그때 서울과 광주를 오가며 목숨 걸고 동행한 택시운전사가 바로 김사복. 영화에선 김만섭으로 각색됐다. 송강호는 “87년의 광주라는 실화의 무게에 출연을 잠시 망설였다”고 입을 열었다. 글=나원정 <중앙일보> 기자 / 사진=조원진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39  
2017/08/11/Friday

## 영화배우 송강호 평범한 사람들의 도리를 믿는다



Q 언론사 사회 때 <택시운전사> 출연이 유가 '마음의 빛'이라고 한 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박한 심정에서 얘기한 건데, '너무 거창했다' 후회했습니다. 어찌 됐든 저도 어린 나이이지만 '까막눈'으로 그 시대를 관통했잖아요. 광주 민주화운동 때가 중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라디오를 통해 폭도를 진압했다는 왜곡된 뉴스를 듣고 '휴,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하나씩 진실을 알게 됐죠. 1987년 6월 민주항쟁도 그렇고, 지난 세월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광주시민이나 만섭 같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시민정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도리 같은 것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영화가 그 고결한 정신을 기억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억할 것이라는 암시가 되길 바랍니다.

Q '고통스러운 시대를 극복해온 평범한 사람들의 도리'와도 맞닿은 이야기인 듯 합니다.

도대체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도리가 <택시운전사>에 흐르는 화두입니다. 광주의 비극은 누군가 바로 그 도리를 저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요. 만섭은 택시운전사로 돈을 받고 정당하게 서울로 데리고 돌아와야 했을 손님(독일 기자)을 사지(광주)에 두고 나만 살겠다고 빠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게 인간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유턴을 하고 돌아간 광주에서 비극을 비로소 정면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Q 광주에 간 만섭이 붉은 불빛 속에 사복경찰에게 쫓기던 밤 장면은 흡사 공포영화 같더군요.

만섭이 도망가다가 고개를 돌리는데, 자기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처참하게 붙잡혀 있는 트럭이 보이죠. 카메라가 약간 깜빡깜빡합니다. 이게 만섭의 시선인 거죠. '내 눈에 보이는 게 지금 현실인가? 꿈인가?' 이런 몽환적인 느낌을 줍니다. 만섭은 그날 어마어마하게

혼란스럽고, 죽을 뻔도 하죠. 그런 공포는 난생처음이었을 겁니다.

Q 시위대가 군부독재의 충격에 죽어가는 금남로 장면이 유난히 고대보였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손치더라도 광주 금남로의 아픈 역사를 재현할 때, 사진으로 보고 영상으로 봤던 것이 내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질 때는 아무리 그게 촬영이지만 당사가 연상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Q 혼자 도망치려던 만섭이 돌아온 것도 실화인가요.

그것과 마지막의 카체이싱은 허구입니다. 그런데 일토당도 않은 건 아닙니다. 영화에서처럼 광주의 수많은 택시운전사들이 민주화운동을 헌신적으로 도왔던 것은 사실이니까요. 만섭도 김사복이란 미지의 인물을 기반으로 상상한 존재이지만 그 마음이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영문도 모르고 갔다가,

본인도 두렵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독일 기자를 태우고 탈출한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Q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만섭의 감정을 클로즈업한 장면이 많습니다. 시나리오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빈틈을 연기로 채워 나간다는 인상을 받았습니

다. 어떤 영화든 배우가 채워 나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시나리오는 텍스트지, 해답이 될 수 없거든요. 텍스트가 정교하고 풍부한 경우도 있지만, 한정된 상영 시간 안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기가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죠.

Q 이번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면요.

광주를 탈출하는 와중에 박 중사(엄태구)를 만나는 장면이요. 스포일러라 자세히 설명할 순 없지만, 실화이기도 하고 처음 시나리오를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광주 민주화운동의 아픔에는 광주시민들의 아픔도 있지만 이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것도 들어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 고통 받으며 작전에 투입된 수많은 군인이 있었다고 하나요. 이 영화가 지향할 한 장면을 꼽는다면, 저에게는 그 장면이네요. 우리 모두의 아픔을 우리 스스로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요.

Q <의형제>(2010) 이후 장훈 감독과 7년 만에 재회했는데요.

장훈 감독은 한결같습니다. 최고의 장점이 사람도, 영화 연출도 참 담백하다는 거예요. 표현에 있어 지나친 욕심을 내는 법이 없어요. 저보다 여덟 살 어린데, 그런 담백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Q 최근 들어 비극적인 시대에 눈뜨는 시민의 역할을 자주 맡아오고 있습니다. 캐릭터의 측면에서 <택시운전사>는 <변호인>과도 흡사한 구석이 많은데요.

작품을 선택할 때 전작의 소재나 캐릭터와 비슷해서 안 하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연기가 스포츠처럼 정해진 시간 안에 승부를 낸다거나 순위가 결정되는 작업이라면 그것도 중요할지 모르죠. 하지만 배우란 자연인 송강호와 함께 긴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직업이기 때문에 단거리적인 이미지는 지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작품 전체의 깊이나 무게감, 함의, 사회적 확장성이 더 중요하죠. 필요 이상으로 잔혹하고 자극적으로 느껴지는 장면이 있다면 감독과 상의를 해요. 꼭 찍어야 한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Q 지금 <마약왕>을 함께 찍고 있는 우민호 감독은 전작 <내부자들>(2015) 때 여성과 폭력에 대한 적나라한 묘사 때문에 비판받기도 했어요.

우민호 감독과도 그런 얘길 했어요. 본인도 반성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카메라 워킹이 미흡했을 뿐이지, 그 적나라한 모습들은 주제적으로 '내부자들'에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Q 출연 예정이었던 원신연 감독의 <제5월>은 지난해 말에 제작 중단 소식이 있었어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먼저 촬영할지도 모르겠네요.

<제5월>은 시나리오에 좀 더 공을 들여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생충>은 내년 봄에 촬영에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Q 콘티까지 꼼꼼히 그리기로 유명한 '봉테일' 봉준호 감독과의 네 번째 호흡이 기대감이 있다면요.

봉준호 감독뿐 아니라 박찬욱 감독, 김지운 감독 같이 20년지기들이 좀 있죠. 그분들과의 작업은 항상 설레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콘티는 거의 안 봐요. 그냥 시나리오를 보고 인물의 감정을 따라가죠. 콘티 북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지, 현장에서 많이 바뀌거든요. 그대로 찍는 건, 딱 한 분 계시죠, 박찬욱 감독. <공동경비구역 JSA>(2000) 마지막 장면 콘티를 보면 놀랄 거예요. 똑같아요. 배우들이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병헌씨 입 약간 벌리고 있는 것까지 그대로예요(웃음).

Q 할리우드 영화 출연제약이 있었다고요. 가끔씩 있었는데 몇 번 거절하고 나니까, 이젠..

기본적으로 할리우드 영화에 동양인 배우로서 제한된 캐릭터를 소화하는 형태의 작업이 그렇게 마음이 동하진 않아요. 물론 배우들마다의 선택이 스타일인 건데, 저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Q 늘 어떤 딜레마에 시달리는 캐릭터를 선택하시는 듯합니다. 배우 송강호의 가장 큰 딜레마는 뭡까요.

좋은 영화와 대중에게 사랑받는 영화의 경계선이랄까요. 좋은 영화도 하고 싶고, 상업적·대중적 성취도 이루고 싶은데 항상 동일시되진 않거든요. 좋은 작품이지만 대중적 성취가 떨어질 게 보이거나, 그 반대 경우의 판단들. 배우 입장에서선 항상 딜레마죠.

Q 영화와 함께해 온 21년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요.

아~ 저는 인내라고 봐요. 고통을 참는 인내도 있겠지만 제 스스로 마음의 어떤 일관성이랄까. 긴 세월 건강한 배우로서의 마음을 가지게끔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자극할 때 나오는 고통끝에 대한 인내. 이런 것들을 일관되게 쫓아져오지 않았나. 넓게 보면 배우뿐 아니라 어떤 사회의 구성원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그런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떨 땐 오랜 기다림에 지칠 때도 있고, 너무 어려워서 고통스럽고, 연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괴롭거나 육체적으로 힘들 때도 있지요. 그런 어려움을 지탱하며 계속 살아가는 게 인내죠. 참고, 참고, 이게 내는 거죠.



# 우리는 왜 버퍼가 필요한가

(Buffer)

대학생 시절 친구들과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면 하던 이야기가 있다. 사람이 너무 많이 타서 줄이 끊어지면 어느 곳이 가장 안전한가 하는 궁금증이였다. 구석 자리가 가장 안전할 것 같다는 친구부터 가운데를 지목한 친구, 무언가를 붙잡고 공중에 뜬 상태로 버티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믿는 친구 등 각각각색이었다.

우리들의 논란은 토목공학에 다니던 한 친구의 말에 끝이 났다. 지금도 엔지니어링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그 친구는 “아무리 사람이 많이 탄다고 해도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져서 추락할 가능성은 없다”고 장담했다. 이유를 묻자 “엘리베이터는 정원의 5배에서 10배까지 버틸 수 있게 설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엘리베이터에서 만원 경고음이 난다고 해도 그 정도로 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안 우리들은 이후로 꽤나 안심하고 엘리베이터를 탄 것 같다. 심지어 요즘의 엘리베이터는 줄이 끊어져도 밑으로 추락하지 않게 설계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더더욱 안심하고 엘리베이터에 몸을 맡겼다.

## 비행기가 위험할까 자동차가 위험할까

그런데 왜 엘리베이터는 만원 중량의 5배에서 10배의 무게를 버틸 수 있도록 만든 걸까. 2배 정도만 버틸 수 있게 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엘리베이터가 쓸데없이 보일 정도로 과중한 무게를 버틸 수 있게 만든 것은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안심을 주기 위해서다.

정원의 2배만 버틸 수 있게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대체로 안전할 것이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들 것이다. 그러나 지금보다는 사고가 자주 났을 것이다.

엘리베이터에서 줄이 끊어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공포감을 준다. 아무리 가끔이지만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정원의 2배는 사람들을 안심시켜 주는 버퍼(Buffer)가 아니다.

엘리베이터가 견딜 수 있는 무게를 과하게 잡았고, 그 때문에 비용이 훨씬 더 든 것도 사실이지만 그 덕분에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져 추락하는 사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이처럼 과도한 방어막은 비용만을 놓고 보면 ‘합리적’이지 않지만 인간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장 ‘합리적’이기도 하다.

전문가와 일반인이 다양한 위험 요소를 앞에 놓고 가장 위험해 보이는 것을 평가하는 실험이 있다. 이때 일반인과 전문가의 시각이 자주 엇갈린다. 일반인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 상당수를 전문가들은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고 하는 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자주 벌어진다.

대표적으로 비행기와 자동차 사고를 비교해 보자. 어느 사고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가. 대부분은 비행기 사고를 더 위험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사망자수 등 다양한 평가기준을 적용해 봐도 자동차 사고가 훨씬 더 위험하다. 그러나 우리 머릿속엔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의 끔찍한 모습과 대규모의 사망자가 먼저 떠오른다. 자동차 사고는 운전자인 내가 막을 수 있지만, 비행기 사고는 어쩔 수 없다는 무력감이 공포를 더 불러 일으킨다. 게다가 비행기 사고의 원인은 테러부터 날씨 변화까지 미지의 것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일반인은 이처럼 결과가 끔찍할 때, 한번 위험에 노출된 사람의 수가 많을 때, 원인을 모르거나 제어할 수 없을 때, 훨씬 더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 진짜 전문가는 불합리한 인간을 이해하는 사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일을



## 전문가라면 1%의 위험에도 불안해하는 보통 사람들 위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엘리베이터처럼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안심할 수 있게 버퍼를 만들어야 할까. 가능한 일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일이 있다. 모든 경우에 과도한 버퍼를 놓는다면 비행기는 결코 하늘을 날지 못할 테고 50층 넘는 건물은 결코 짓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오히려 전문가들에게 있다. 전문가는 자신이 계산해낸 숫자를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 아마 그 숫자가 99% 이상 맞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에게 아쉬운 건 1%의 오차가 아니라 전문가의 계산을 못 미더워하는 보통 사람들을 그저 잘못됐다고만 생각하는 경향 때문이다.

1%의 위험에 불안해하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원시 시대를 생각해 보자. 눈앞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사자일 확률은 1%도 안 된다. 그러나 그 소리에 도망친 원시인은 비록 배가 좀 고프더라도 계속 살아남았고, 그 소리를 100번이나 무시한 원시인은 마지막에 결국 사자에게 잡아먹혔을 것이다. 우리가 알고있는 아닌 이상 위험 확률을 합리적으로 따지면서 사는 건 불가능했을 거고, 조금이라도 위험하다 싶으면 도망쳤던 원시인이 결국 우리의 조상이 됐던 것이다. 도망치는 것은 합리적인 일이 아니었지만 그 습관을 고집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었다.

따라서 현대사회의 리스크와 공포를 극복하는 최선의 길은 일반인과 전문가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전문가는 칼로 자르듯 위험과 안전을 구분하기보다 일반인이 충분히 안심할 정도의 환경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역시 심장보다 뇌에 좀 더 많은 역할을 쥐어 준다. 부스럭거리는 풀숲 너머 낙원이 있을지도 모르지 않는가.



김상연

과학칼럼니스트

※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똑똑한 회사생활 Tip

### 회사에서 인정받는 ‘보고의 기술’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누군가를 설득할 때 나는 시간의 3분의 1을 나 자신과 내가 말할 내용을 구성하는 데 할애한다. 나머지 3분의 2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생각하는 데 쏟는다”고 했다.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보고’도 이와 같다. 설득의 대상인 상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상사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여러 명에게 보고를 받는다. 그래서 보고에는 ‘기술’이 필요하다.

####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보고하지?

안 좋은 상황을 보고할 때 핑계를 대거나 위기 상황을 축소한다면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명확한 사건 파악을 위해 객관적이고 디테일한 사실을 빠짐없이 털어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또 위기 상황에서는 누구나 하동지동 당황하기 마련이다. 그럴 때일수록 이리저리 시간을 거스르며 말하는 것보다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 보고하는 것이 좋다.

#### 결과가 좋다, 어떻게 보고하지?

좋은 결과일수록 상사가 묻기 전에 미리 정리해 보고하자. 나를 어필해야 하는 순간인데,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성과를 100% 알리고 인정받기 힘들다. 일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풀 스토리는 상사의 관심사가 아니다. 보고할 때는 두괄식으로 해야 할 말부터 먼저 하는 센스를 발휘한다.

#### 의견을 제시할 때, 어떻게 보고하지?

인생은 타이밍이다. 상사가 여유로워 보일 때가 바로 최고의 타이밍! 최악은 출근 직후나 점심시간·퇴근 직전이다. 의견을 제시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말투’다. 개인적인 의견이나 새로운 사실을 보고할 때는 어느 때보다 겸손하고 예의 바른 말투로 하자. 상사가 ‘고수’라는 전제를 깔면 좀 더 보고가 수월해진다.

## 그룹웨어 돋보기

### 우리 회사 ‘e-Book 도서관’에서 책 한권 어때요?

입추(立秋)가 지나고 나니 무섭도록 무더운 날씨가 한풀 꺾이고 늦은 가을이 보인다. ‘독서의 계절’이라 불리는 9월을 앞두고, 우리 회사 ‘e-Book 도서관’에서 책 한권을 빌려 보는 건 어떨까?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PC·스마트폰 등에서 맘껏 독서할 수 있다.



**접속하라!** 그룹웨어 상단 메뉴바에서 ‘Knowledge’에 커서를 가져다 대면 [지식관리] [기록관리] [e-Book]이라는 세 가지 상위 메뉴가 나온다. 그중 [e-Book] 아래의 ‘e-Book’을 클릭하면 새 창이 열린다.

새 창이 열리면 로그인을 해야 한다. 회원가입을 따로 할 필요는 없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칸에 각각 사번을 입력하면 끝! 스마트폰에서도 e-Book 도서관을 이용하길 원한다면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야 한다. \*최초 이용 시 총무팀 담당자(3050)에게 승인을 요청하자!



**독서하라!** ‘e-Book 도서관’ 이용법은 일반 도서관과 비슷하다. 원하는 책이 [대출하기]로 나온다면 바로 대여할 수 있는 것이고, [예약하기]가 뜬다면 대출자가 반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대출하거나 예약한 책 목록은 오른쪽 상단의 [내 서재]에서 확인 가능하며, PC에서 대여한 책을 읽을 시에는 ‘e서재 설치 파일’을 내려 받아야 한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독서하고 싶다면 ‘교보문고 전자도서관’ 앱을 내려받자! 앱 실행 후 도서관 검색창에 ‘현대건설’을 찾으면 된다. 아이디는 사번, 비밀번호는 회원정보 수정을 통해 재설정된 번호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화상실·지하철·침대 위에서 책을 읽을 수 있으니 이보다 간편할 수 없다.



남자들이 넥타이를 풀면 체감온도가 2°C나 내려간다고 한다. 이때문에 기업들은 저마다 한여름이면 넥타이를 생략하는 이른바 쿨비즈 복장을 허용하곤 한다. 그러나 통 넓은 정장 바지에 근본 없는 헐렁한 반팔 화이트 셔츠가 쿨비즈의 정석은 아니다. 멋과 시원함을 둘 다 잡을 수 있는 여름 쿨비즈룩 팁을 알아본다.  
글=이도은 <중앙일보> 기자/사진=LF패션, 신세계인테리어서널, 게티이미지뱅크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39  
2017/08/11 / Friday



# 넥타이만 풀면 쿨가이? 원래 차림에 타이만 풀면 '아재 패션'



1 화이트 셔츠에 캐주얼한 체크 재킷과 스카프를 매치한 닥스 2017 SS 화보. 2 여름철에는 밝은 색의 리넨 재킷과 노타이 룩을 매치해도 잘 어울린다. 3 넥타이 대신 스카프를 포인트를 준 여름가을 룩.

## 타이 실종 시대

남자들 목에서 타이 가 사라졌다. 요즘 같은 더위엔 더욱 그러하다. 오피스타 운엔 헐렁한 회색·감색 바지에 타이 를 매지 않은 흰색 반팔 셔츠가 열 중 여덟 아홉. 이른바 '쿨비즈(Cool Biz, 시원하고 간편한 비즈니스 복 장)'의 전형이다. 넥타이와 재킷 만 던져도 체온이 2~3°C 내려간 다는 과학적 근거가 패션에 작용 했다. 꼭 더위 탈출이 아니라도 타이 실종의 이유는 더 있다. 유 연한 조직, 소통이 잘되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점점 더 많은 기업이 노타이를 권장한다. 최근 뉴스는 일반 기업뿐 아 니라 국가 지도층도 비슷하다는 걸 보여준다. 지난 7월 19일 문 재인 정부 5년의 로드맵을 발표 하는 국정과제 보고대회 가 대표적이다. 문 대통 령은 물론 참석자 모두 노



타이 차림이었다. 사실 이런 모습이 그 리 낫설지 않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은 아예 후보자 시절부터 이미 목이 허전했다. 이 들 모두 '여름철 공무원 직장 간 소화 지침'이라는 공식적 이유 외에 '소통의 정부' '혁신의 리더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려 노타이 복장을 시도했다.

## 최신 타이 트렌드? 노타이!

사실 노타이는 요즘 남성복 의 대세다. "요즘 가장 핫한 타이 트렌드는 노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제냐·아르 마니 같은 대표적 남성복 브랜 드에서조차 타이로 신사의 품 격을 갖춘 옷이 확 줄었다. 타 이를 매지 않는 대신 슈트 안 에 티셔츠를 받쳐 입거나 드레

스 셔츠가 아닌 화려한 꽃무늬 셔츠로 대신하기도 한다. 관람객 대다수가 신사 복의 정석을 보여주는 세계 최대 남성복 박람회인 이탈리아 피렌체 '피티위모' 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매년 이 행사를 찾는 남성패션지 <루엘> 의 박정희 기자는 "클래식 슈트에 매듭 이 두툽한 타이를 맨 신사는 2~3년 전부 터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격식을 따지 지 않는 길거리 패션이 유행하면서 벌어 지는 현상이다.

이런 영향으로 최근에는 가장 보수적 이라는 정계에서도 이 같은 변화가 감지 된다. 지난 6월 29일에는 복장 규정 이 까 다름기로 소문난 영국의회가 '비즈 니스 룩에 넥타이를 매는 건 필수 가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비즈니스 패션'의 드레스 코드가 달라진 셈이다. 앞서 6월 27일 프 랑스에서는 극좌 정당 '프랑스 영 수미즈(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소 속 남성 의원들이 하원 개원식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캐주얼 복장 으로 등원하기도 했다.

## 셔츠 형태와 소재, 바지 핏 등 전체적 분위기 맞춰야

어쨌거나 노타이는 더위도 이기면 서 조직 분위기도 바꾸고, 트렌드도 따르는 일석삼조 스타일링이 됐다. 하지만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뒤편 노력에 따르는 법. 단순히 타이만 생략하는 노타이는 그저 '아재 패션' 일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업그레이드해야 할까.

남성 클래식 패션 전문가인 편집 습 '알란스'의 남훈 대표는 "정장 슈 트에 노타이는 애초 맞지 않는 격식" 이라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정 타 이를 하지 않겠다고 화이트 드레스 셔츠만은 피하라"고 조언한다. 그는 "조금은 캐주얼한 소재의 줄무늬 화 이트나 블루 셔츠가 배배 낫다"고 말했다.

노타이는 슈트보다는 상·하의를 따로 입는 재킷



6 폴스미스 2017 SS 컬렉션. 7 조르조 아라마니 2017 SS 컬렉션. 8 질스투어트뉴욕 2017 SS 화보. 9 브루넬로 쿠 치넬리 2017 SS 컬렉션.

차림이나 아예 재킷을 입지 않을 때가 더 어울린다. 물론 전제가 있다. 어울리 는 셔츠를 제대로 골라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맞춤 셔츠 전문점 '스테디스테 이트' 안은진 대표는 "일단 접어 입더라도 긴 소매는 기본"이라며 "일정하게 힘을 받아 무너지지 않는 칼라(깃)의 셔츠 를 고르라"고 말한다. 한국의 대다수 '아 재'들이 덥다고 반팔 셔츠에 타이까지 풀어버리면 '쿨'한 패션이 아니라 그저 '아재 패션'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가장 무난하고 기본적인 것이 버튼 다운 셔츠다. 양쪽 칼라 끝에 단추가 붙은 셔츠로, 목 단추를 풀더라도 칼라 가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세미 캐 주얼을 대표하는 아이비룩(미국 북 동부 명문 대학생들이 즐겨 입는 패 션)에서도 옥스포드 소재의 버튼다 운 셔츠는 단골 아이템이다.

스프레드 칼라 셔츠 역시 노 타이룩에 좋은 대안이다. 칼라 사이가 넓게 벌어져 타이를 매 지 않을 때 여유로운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디자인이다. 여기에 안 대표 가 추천하는 건 요즘 많이 출시되는 원피스 칼라 셔츠다. "뒷목 부분의 칼 라밴드와 칼라가 하나로 이어져 꺾임 이 자연스러운 데다 첫 단추가 없는 형 태가 많아 노타이에 최적화된 셔츠"라 는 게 안 대표의 설명이다.

'아재 탈출'에 좀 더 욕심을 내자면 바지·벨트·구두까지 자연스럽게 노 타이룩에 맞게 바뀌는 게 좋다. 겔 러리아백화점 남성 편집숍 '지 스트 리트 494 옴프'의 이여름 바이어는 "평범한 정장 바지보다 슬림한 바지가 잘 어울린다. 치노팬 츠에 로퍼나 스니커즈로 매치해도 좋다"고 추천했 다. 벨트 역시 대표적 '아 재 패션 아이템'인 금속 버클 의 검정 가죽띠에서는 벗어나는 게 좋 다. 그는 "노타이는 비즈니스 캐주얼의 일종"이라며 "타이만 안 매는 게 아니 라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덧 붙였다.

## 스프레드 칼라 또는 원피스·만다린 칼라 등 어울리는 셔츠와 매치할 것



4, 5 노타이 룩에는 무엇보다 셔츠가 중요하다. 칼라가 없는 만다린 칼라나 헨리넥 셔츠도 노타이 룩에 제격이다.

## 30여 종류의 닭요리를 즐길 수 있는 곳 와룡동 닭매운탕

와룡동 닭매운탕은 창덕궁을 지나 종로3가 가는 길 골목에 자리 잡고 있다.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다양한 종류로 가득찬 메뉴판이 한눈에 들어온다. 닭곰탕·닭개장·닭매운탕 등 일반적인 닭 메뉴부터 닭발편육·닭젓국전골·닭알탕 등 특이한 메뉴까지 어림잡아 30여 가지는 되어 보인다. 닭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이렇게 많은지 새삼 놀라울 따름이다. 2014년 개업 초기만 해도 세 가지로 단출했던 메뉴는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의 다양한 메뉴판으

로 탈바꿈했다. 이곳의 주력 메뉴는 상호명에 걸맞게 닭매운탕이다. 강황 닭매운탕·더덕 닭매운탕·도라지 닭매운탕 등 종류도 세 가지나 된다. 더덕은 강원도 횡성에서, 도라지는 전북 순창에서 직접 공수해온다. 주인공은 더덕이나 도라지를 닭매운탕 육수에 우리면 설탕을 덜 넣어도 단맛이 올라오고, 카레맛을 내는 강황을 첨가하면 특유의 향으로 감칠맛이 배가 된다고 설명했다.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 닭은 사이즈가 큰 국내산 토종 품종만을 사용한다. 암나무, 황기, 양파껍질로 우려낸 육수에 간마늘, 매실액, 고춧가루 등의 양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버섯, 감자, 숙주를 비롯한 다양한 채소들을 푸짐하게 넣어 칼칼하면서도 입에 착착 감긴다. 자작하게 남은 국물이 곁들여진 매콤한 볶음밥이나 칼국수도 별미다.

함께 나오는 밀반찬도 매일 종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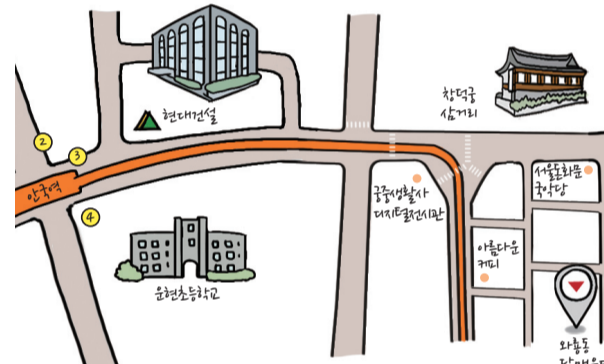


바뀐다. 직접 닭근 김치부터 신선한 식자재로 만든 콩자반, 생선구이, 나물, 가지무침 등 집밥 같은 건강한 반찬을 내놓으려고 노력한다.

저녁에는 맥주와 함께 술안주로 즐길 수 있는 요리도 많다. 특히 닭구이에 제주도에서 직접 공수해 비방양념으로 만든 갈치숙젓을 찍어 먹는 감칠맛이 남다르다. 닭매운탕과 토종 닭메뉴는 주문과 동시에 조리하기 때문에 약 20여 분이 소요되므로 예약을 하면 기다리지 않고 먹을 수 있다. 40개 좌석, 룸 1개(20명 수용 가능).

글=김승희 / 사진=이슬기

- 1 주력 메뉴인 닭매운탕.
- 2 와룡동 닭매운탕 내부 전경.
- 4 생맥주 한잔이 제공되는 와닭 치킨.



### 와룡동 닭매운탕

주소 서울 종로구 율곡로10길 30  
영업시간 오전 11시~오후 10시  
(BreakTime 오후 3~5시)  
문의 02-743-1134  
SNS instagram.com/wadak2014

현대건설 임직원을 위한  
**special event**  
현대건설 사원증 제시시  
**생맥주 400cc 한 잔 제공**  
(테이블당, 저녁 주문만 해당)  
8월 한달간

## 문화책갈피

무더위가 막바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의 끝자락이다. 끈적끈적한 습도와 높은 온도를 어떻게 견딜지 고민인 당신을 위해 에어컨보다 시원한 미스터리·공포 소설 4편을 소개한다.

## 에어컨보다 시원한 미스터리·공포 소설



### 위험한 비너스

저자 H.G. Wells | 출판사 현대문학

주인공에게 아버지의 사망 후 어머니가 재가해 얻은 이부동생이 있다. 동생과 특별한 왕래가 없던 주인공에게 어느 날 동생의 아내 가에데가 찾아와 남편이 쪽지 한 통만 남긴 채 사라졌다고 말한다. 이로써 주인공은 일련의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지난달 30일 출간되자마자 각 온라인 서점 베스트셀러 순위권에 안착했다. '악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등을 펴낸 '일본 추리소설계의 일인자' 히가시노 게이고의 신작.



###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저자 아가사 크리스티 | 출판사 해문

크리스티의 전 작품 중에서 스릴과 서스펜스가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받을 만큼 여러 번 리메이크된 명작으로 원작은 「열 개의 인디언 인형(The Ten Little Indians)」이다. 정체 불명의 사람으로부터 무인도에 초대받은 여덟 명의 손님과 하인 부부, 기묘한 인디언 동요가 사건을 이끌어간다. 전혀 연관되지 않을 것 같은 이들의 연결 고리가 밝혀지면 에어컨이 필요 없는 상황을 최소 한 시간 동안 경험할 수 있다.



### 종의 기원

저자 정유정 | 출판사 은행나무

패내는 작품마다 숨 막힐 듯한 서사로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은 정유정의 작품이다. 줄곧 제3자의 입장에서 서술해왔던 기존의 작품인 「7년의 밤」, 「28」과 다르게 「종의 기원」은 작가 본인이 주인공이 돼 좀 더 세밀하게 '악인'을 묘사한다. 단순히 '사 이코패스는 아마 이런 인간일 것이다'는 추상적 접근이 아니라 한 명의 악인이 탄생하기까지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상호작용하는지를 과학적인 접근으로 날카롭게 그렸다.



### 모방범

저자 미야베 미유키 | 출판사 문학동네

도쿄의 공원에서 여자의 오프팔과 핸드백이 발견된다. 젊은 여성들을 납치해 살해하고 피해자 가족을 전화로 농락하며 방송국에 연락해 범위를 자랑하는 범인. 여기에서 목격자의 어두운 과거, 희생자 가족의 숨겨진 사연 등이 얽히면서 얘기는 더욱 긴박해진다. 인물 간 관계 묘사가 워낙 치밀해 범인 잡는 추리소설이 아니라 범죄가 소재인 본격소설처럼 느껴진다. 일본에서만 300만 부가 팔렸고,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총 3권.

## 〈SPA 시험〉 이렇게 준비하자

### Picture Description 유형

Please describe the picture below.



This picture seems to be taken at the rooftop of a city building in the day time. The weather looks cloudy. There are five people sitting near the glass wall and the white coffee cups are in front of them. Three people are looking at the Notepad together and the other two people on the back are having a conversation. The woman sitting at the front is wearing a white blouse and black skirt.

### Opinion Question 유형

Euthanasia is the deliberate advancement of a person's death for the benefit of that person. In most cases euthanasia is carried out because the person asks to die, but there are cases where a person can't make such a request.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mercy killing?

I Agree. Mercy killing should be Legal! I have always felt that mercy killing should be legal. If people can make the decision on an animal dying of cancer than why can a person make that decision for another. Yes, people are different than animals, but at the end of the day, I would rather one of my family members put me to rest if they feel it is best for me, and I gave them the permission to make that decision upon my behalf if I am someday unable to make that decision myself.

자료 제공 SLI 교육원(02-541-7219)

와본 사람들은 모두 놀란다. 힐스테이트의 순환 산책로는 힐스테이트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이다. 푸른 나무가 우거진 숲길부터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놀이터, 벤치와 분수가 있는 광장까지. 누구나 부러워하는 산책로를 자랑하는 힐스테이트 단지로 떠나보자. 자료제공=〈Hillstate Promise〉매거진/사진=박상국, 이병주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39  
2017/08/11 /Friday

# 걷기 좋은 힐스테이트 여름 산책로



### 이수 힐스테이트

이수 힐스테이트는 단지 내 산책로가 매우 잘 조성돼 있어 아이들과 함께 걷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특히 수목원을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돋보이며, 푸른 자연과 아파트 건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풍경이 멋스럽다. 입주민의 친목 도모를 위한 벤치나 어린이 놀이터 등도 잘 마련돼 있다.



### 힐스테이트 목동

힐스테이트 목동은 지상으로 차량이 출입하는 것이 제한돼 있고 단지 내 모든 길을 넓은 산책로로 만들어 놓은 것이 특징이다. 나비·무당벌레 등 곤충을 형상화해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어린이 놀이터가 인기가 높다. 계다가 감나무·모과나무·살구 나무가 있는 유실수원, 다양한 꽃나무가 있는 봄꽃정원 등 울창한 나무와 꽃이 만개한 정원으로 각 동 앞의 빈 여유 공간을 조성한 것도 매력적이다.

### 창원 감계 힐스테이트 4차

작대산이 단지 뒤편을 둘러싸고 있어 아늑한 느낌을 주는 창원 감계 힐스테이트 4차. 물줄기가 시원스레 흘러내리는 수경 공간과 다양한 나무들을 심은 야트막한 석가산이 잘 가꾸어진 공원을 연상시킨다. 단지 안에는 시야를 가리는 키 높은 가로수 대신 눈높이보다 낮은 나무들이 있어 전체적으로 편안한 분위기다. 아파트 단지를 감싸고 있는 푸르른 작대산을 바라보며 이웃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티하우스도 이색적이다.